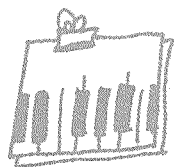


향후 관리방향

국내 기생충감염 실태와



최 원 영

제4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
 사가 1986년 1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중순에 그 검사를 완료하였다. 그후 수개월
 에 걸친 통계 분석과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 본조사는 우리나라의 장내
 기생충 감염양상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파
 악함으로써 기생충 종류별, 지역별, 성별 및
 연령별 등으로 감염실태를 알고 효율적인
 기생충관리의 방향설정에 기초자료로 이
 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조사
 사업은 1971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실시
 되어 1976년, 1981년에 이어 제4차로 1986
 년에 실시된 것이다. 검사대상은 도시와 농
 촌으로 대별하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선
 정하였는데 총 대상은 전인구의 약 1,000분
 의 1에 해당되었다. 사업은 한국 건강관리
 협회가 주관하고 본협회의 각 시도지부에
 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보사부의 협조하에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의 국가보조가
 있었고 내부부의 행정지원, 문화공보부의
 사업내용 홍보와 취재보도 협조, 그리고 대
 한 기생충학회의 자문 등 많은 기관과 사
 람들의 협조로 이 사업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문제는 결핵과 함
 께 중요한 국민병의 하나로서 예전에는 국
 민의 90%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
 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기생충의 주종은
 장내기생충인데 그중에서도 토양매개 선
 충인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및 동양모양
 선충 등으로 알려져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가 전통적인 농경사회로 농업종사자
 가 많았고 농사방식에서 비료중 인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까닭에 농토가 기생충
 란에 오염되고 이들이 다시 인체에 경구섭

취됨으로서 기생충의 생활사가 쉽게 이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허술한 변소, 위생지식의 결핍
 등은 우리나라를 자못 기생충왕국으로 만
 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같은 토양매개선충
 외에도 날것을 즐겨먹는 식습관으로 민물
 고기나 게, 가재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흡충류와 조충류의
 감염도 적지 않았다. 또한 주거생활의 협소
 와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에 의한 접촉성 기
 생충, 즉 요충의 감염율도 극히 높았다.

그후 196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여 기생충관리에 대

에게 보여주었다. 우선 축적충란양성율을
 볼 것 같으면 1971년에 147.1%였던 것이
 1986년에는 14.9%로서 거의 10분의1 수준
 으로 저하되었다. 이와함께 충란양성율도
 1971년의 84.3%에서 1986년에는 12.9%로
 감소하였다. 기생충 종류 별로는 회충란이
 1971년에 54.9%에서 1986년에는 2.1%까지
 감소하였고 편충란은 65.4%에서 4.8%로,
 십이지장충란도 10.7%에서 0.1%까지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이 지난 15년
 동안 장내기생충의 감염율은 현저하게 저
 하되었으나 앞으로의 기생충관리에 는 오
 히려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 과거에 비해 충란양성
 율이 현저히 저하되긴 했
 지만 아직도 충란양성율이
 12.9%라는 것은 인구 100
 명당 13명이 어떤 종류던
 간에 장내에 기생충을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이니 경
 시할 문제가 아니다.

한 인식이 높아져 1966년에는 기생충 예방
 법이 제정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검사
 와 치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
 다. 이에 따라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현 한
 국건강관리협회)는 우선 학생 검변과 구충
 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기생충 퇴치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1971년 부터는
 전국적 규모의 장내기생충 감염율 실태조
 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여러가지 과제를 우리

본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상태에 만족하여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기생충관리사
 업은 성공적이었으며 더 이상의 관리는 필
 요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장내기생충감염율이 현저
 히 저하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충란양
 성율이 12.9%라는 것은, 인구 100명당 13
 명이 어떤 종류이던간에 장내에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니 경시할 문제가 아
 니다. 소위 선진국에 있어서는 장내기생충



◀ 이제까지의 감염을 저하에 비하여 앞으로의 감소경향은 둔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실제로 우리 국민이 장내 기생충에서 해방되는 때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감염율이 거의 0%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비해보면 아직도 우리가 기생충관리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진국가들의 기생충 감염을 저하추세를 참고하여 보면, 이제까지의 감염을 저하에 비하여 앞으로의 감소경향은 둔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실제로 우리국민이 장내기생충에서 해방되는 때가 가까운 시일내에 도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기생충에 대한 경계심이 적어져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생충이란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 곧 원상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음을 잘 알고 보다 꾸준한 경계가 필요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이후에 WHO는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국가단위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었다. 그후 말라리아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또 모기성충을

죽이는 DDT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오늘날 말라리아는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인도 등지에서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에 이환되고 사망하고 있어서 인류는 또 다시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DDT의 생산중지는,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머리나 몸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이것이 보건문제의 하나로 재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4차 조사에서 3.6%의 감염율을 나타낸 요충이 문제가 되고있다. 요충은 일반적인 분변검사로서는 정확한 판정이 힘들다. 즉 1971년에 1.3%, 1976년에는 미시시, 그리고 1986년에는 3.6%를 나타낸 요충감염율이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조사성적이다. 요충의 감염율은 검사대상, 검사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들의 예상으로는 20% 이상의 감염율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구조충과 유구조충도 분변검사로 정확한 성적을 얻기 힘들며, 특히

원충류 감염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장내기생충감염을 실태조사에서는 세포관후충도말법에 의하여 대상자 마다 1매의 표본을 작성하여 검사하였다. 이와함께 전 대상자에게 포화식염수 부유법을 실시하여 성적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집단검사에서는 아무리 정확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회충과 같이 산란수가 많은 기생충의 경우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산란수가 적은

흡충란 등은 누락될 위험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조사성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같은 조건이나 취약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기관의 많은 인사들이 적극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사료되나 누구보다도 직접 가검물을 수집하고 직접 가검물을 검사한 분들의 노고가 가장 많았을 것이다.

〈필자=가톨릭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의박〉

웃음 한마당

무식한 아버지

서당에서 돌아온 아들을 불러 앉히고

『얘야, 남의 집 애들은 서당에서 글씨를 써가지고 오면 으레 부모님께 보이는데, 너는 벌써 서당엘 삼년이나 다녀도 한번도 나한테 글씨 쓴걸 보이는 적을 못 보았구나.』

『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니까 그렇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글씨 모른단 소리를 듣는게 자격지심이 들었던지 얼른 아들의 글쓴 종이를 빼앗는다.

『아이고, 저런! 글씨 쓴걸 꺼꾸로 들고 보면 어떡해요. 바로 보셔야지.』

『아따 인석아! 배우는 글씨는 뒤로 보아야 하는 법이란다.』

아버지는 슬그머니 바로 들고 아들을 나무란다.

『이건 큰 댕자가 왜 이렇게 썰그러졌니?』

『큰댕자가 어디 있어요?』

『댕, 이게 큰 댕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게 개 견(犬)자지 큰 댕자입니까?』

『오오, 개는 개로되 미친 개로구나. 그러기에 어깨 위에 돌맹이가 떨어지지.』

『돌맹인가요? 큰 댕자 위에 점을 찍으면 개건 자지요.』

『이 산적적 자는 꼬챙이가 휘었구나.』

『산적 적 자가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냐? 네모 반듯한 놈에 꼬챙이 낀것 아니냐?』

『그게 가운데 중(中)자지 산적적이 무엇입니까?』

『허허! 산적은 가운데를 쾰는 것이니까 가운데 중 자라고도 하지…….』

『그럼, 아버지! 나무목 둘한 자는 무슨자인지 아십니까?』

『나무목 둘한 자는 쌍지팽이 행 자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나?』

『쌍지팽이 행이 다 무엇입니까? 수풀림(林)자지요.』

『인석아 외지팡이도 아니고 쌍지팽이부터는 숲속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수풀림자라고도 하는게 아니냐.』